

본지는 GIS WORLD와 GISASIAPACIFIC 기사를 국내 독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지리정보 7

VOL. 1 NO. 7

The Korea Geographic Information Magazine

JULY 1996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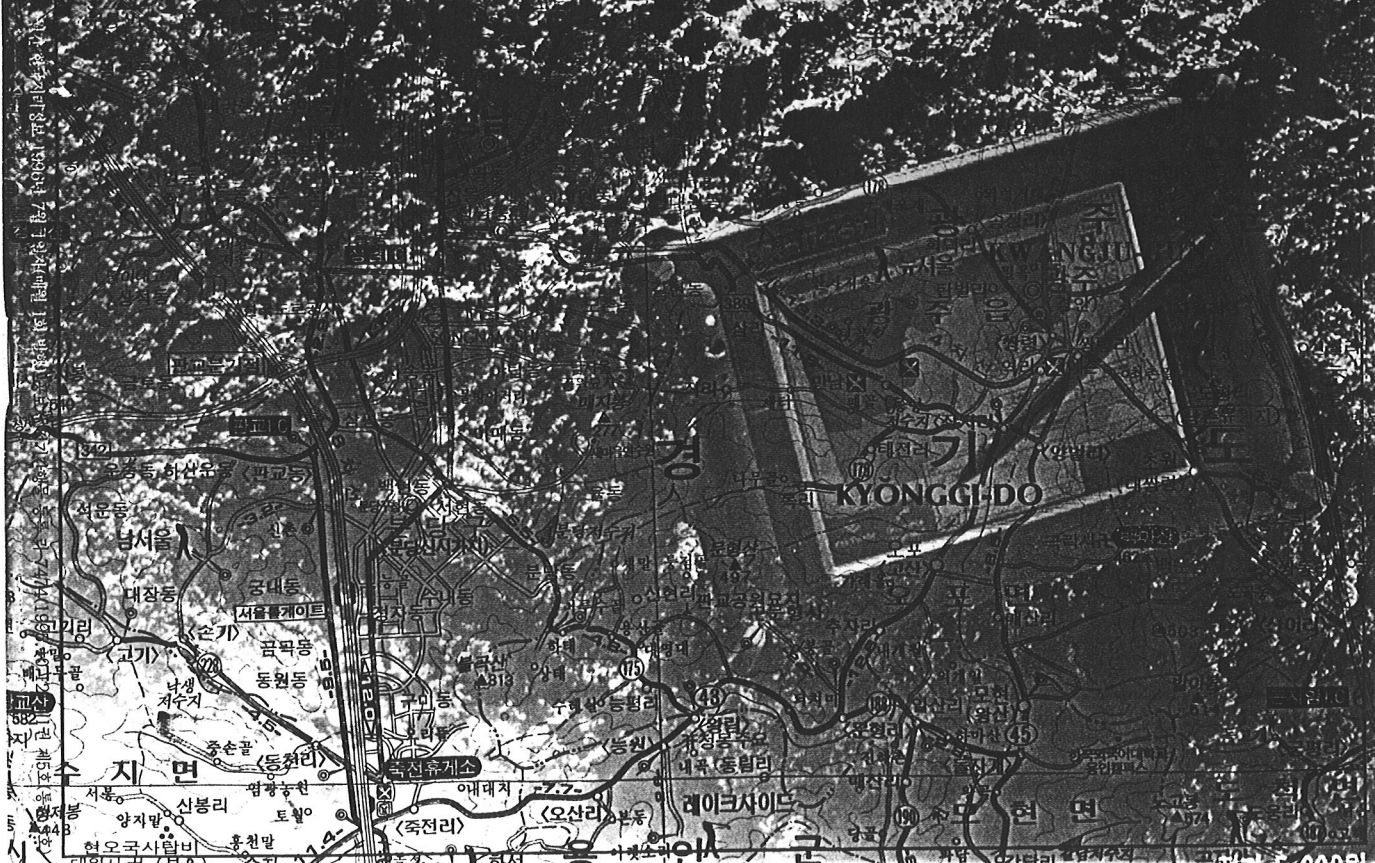
**GIS 호환 포맷 구축하여
수질 관련 정보 체계화시킨다**

공간정보기반구조와 GIS

**한국에서 GPS 응용을 위한
측지기준계간의 좌표변환 특성 고찰**

언더테크 국가기술 참가업체 소개

CAD / GIS 통합 차세대 GIS의 창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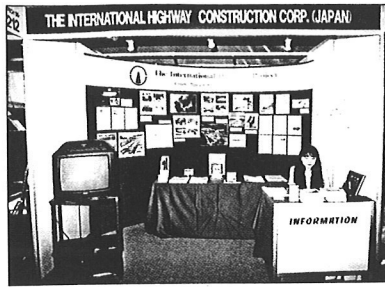


UNDERTECH '96



청조화성(주)

대표자 : 진 인 창
 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4-11
 TEL : (02)508-3161/5
 FAX : (02)508-3160
 회사 소개 : 구조물 보수보강 전문시공, 철근콘크리트 미장 방수, 숏크리팅, 드라믹스 강섬유 판매 및 시공을 하는 회사이다.
 제품 또는 사업 소개 :
 ① 콘크리트 보강용 강섬유



THE INTERNATIONAL HIGHWAY CONSTRUCTION CORP.

대표자 : MASARU HAYANO
 회사 주소 : 37-13, UDAGAWACHO, SHIBUYA-KU, TOKYO, JAPAN
 TEL : 813-3481-5733
 FAX : 813-3481-5994
 제품 또는 사업 소개 :
 ① Highway Construction Books&Panel, TV, VIDEO, Tapes.



(주)공영서림측기

대표자 : 박 장 섭
 회사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8-29
 TEL : (02)546-9888
 FAX : (02)514-1572
 제품 또는 사업 소개 :
 ① SURVEYING INSTRUMENT
 CIVIL TEST MACHINE.

한국지리정보(주)

대표자 : 박 종 우
 회사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 1가 197 유진빌딩 5층
 TEL : (02)749-0855/6
 FAX : (02)790-9655
 회사 소개 : 95년에 설립된 한국지리정보(주)는 GIS 분야의 국내 최고 전문컨설팅 솔루션을 지향하고자 한다. 특히 캐나다 PCI, SPANS, TYDAC 등의 업체에서 자랑하는 최상의 소프트웨어를 국내 공급하는 업체이다.



제품 또는 사업 소개 :
 ① EASI/PACE
 - 전세계 2,000여 사이트에서 지질, 지

리, 대기, 해양, 환경, 임업, 농업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 퍼지 이론을 적용한 분석기법을 하였고, Fly라는 동화상의 새로운 기법을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① SPANS

- 세계 최초의 PC용 공간분석 GIS 소프트웨어로 개발되어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기능, 빠른 분석처리로 공간분석 산업의 표준으로 인정되어 GIS 각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서동산업주식회사

대표자 : 송 성 환
 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78-7
 TEL : (02)546-1118
 FAX : (02)543-8662
 회사 소개 : 건설 환경의 변화에 맞춰 서동은 첨단 터널, 플랜트, 일반토공용 장비와 함께, 시공 현장에서 훈련된 우수 인력의 조합으로 고객에 대한 최선의 시공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단순한 장비의 임대차 거래가 아닌 최상의 정비력과 운영 인력의 전문



성, 다기능화를 통한 장비의 가동률 향상, 시공 공정에 대한 정확한 지식으로 고객의 생

산성 향상, 원가절감, 품질향상을 보장한다.

제품 또는 사업 소개 :

① 터널 공사용 장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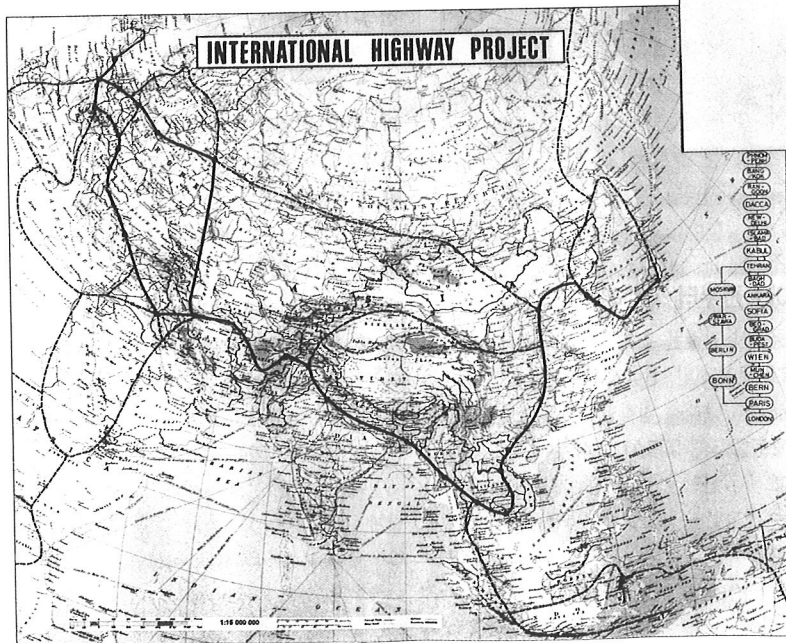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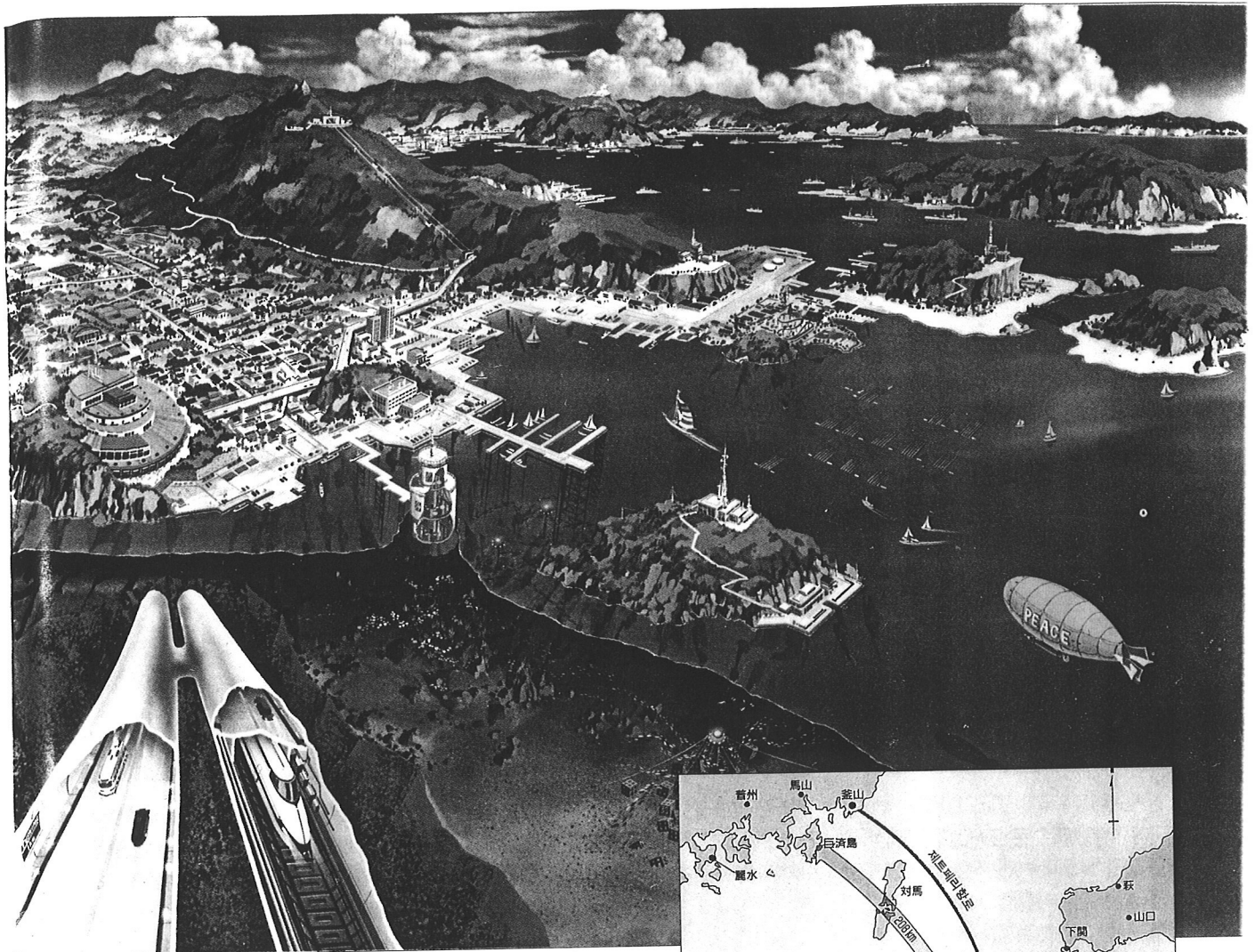
- 3-BOOM JUMBO DRILL
- 2-BOOM JUMBO DRILL
- WHEEL LOADER

① 플랜트 공사용 장비

- 지게차
- 철근 CUTTING MACHINE
- PUMP CAR 32M

kogi

그림뉴스



지난 80년대부터 거론된 韓·日 해저터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해저터널의 사업비는 10조원, 사업 기간은 15~20년, 터널의 총 길이는 노선에 따라 200~231km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향후 이 계획이 성사되면, 연간 무려 10조에 달하는 경제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과연 이 거대한 사업이 진행될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거품 현상으로 끝날 것인지는 관심을 두고 지켜 볼 일이다. <편집자> **kogi**